

# 청룡기 주름잡던 동성고 5독수리, 프로 접수하러 갑니다



김영현

최성민

김시양

박대명

이준범



KBO 신인드래프트서 동성고 출신 6명 지명 받아 KIA, 장타력 갖춘 이준범·장신 투수 박대명 키움, 포수 김시양·고려대 졸업 내야수 이재홍 KT, 투수 김영현·거포 외야수 최성민 영입

KBO리그에 광주 동성고가 뜬다.

지난 21일 KBO 신인드래프트가 열리면서 2021 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든 새내기 결정됐다.

이날 김재덕 감독이 이끄는 동성고는 화제의 팀이 됐다. 5라운드 KT의 순서에서 에이스 김영현의 이름이 나온 뒤 KIA의 10라운드까지 모두 6명의 동성고 선수들이 선택받았다.

고려대 졸업을 앞둔 내야수 이재홍(키움)을 제외한 5명은 동성고 졸업생으로 화제의 청룡기 짝주 주역들이다.

김영현과 함께 '거포 외야수' 최성민이 나란히 KT의 선택을 받았고, '캡틴' 이준범과 '장신 투수' 박대명은 고창팀 KIA로 간다. 안방마님 김시양은 동성고 선배 이재홍과 키움 선수로 프로

데뷔를 한다.

아마 시절을 함께 한 '동성고 독수리 5형제'는 각기 다른 개성과 재능으로 프로 무대에 오르는 꿈을 꾸고 있다.

김영현은 "강한 볼과 싸움닭 같은 기질이 있다. 마운드에 오르면 달라진다"며 "변화구 보완, 체력적으로 부상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내가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경기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롤모델인 '특급 루키' 소병준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김영현은 "신인인데 승부할 때 긴장하지 않고 하는 멘탈적인 부분, 변화구 이런 게 다 좋다"며 "팬들에게 신인다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 외야에 도전장을 내밀게 된 최성민은 '청룡기'의 스타였다. 자신에게는 반전을 이룬 무대이기도 했다.

최성민은 "작년 말에 어깨 탈구 수술해서 준비 기간이 짧았다. 주말리그에서 1할 타율이었는데 청룡기 가서 감 잡았다"며 "연타석 홈런 뒤 마음이 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청룡기에서 연타석 홈런 등 3개의 홈런왕에 오른 최성민은 파워가 역시 강점이다. 롤모델은 강백호다.

최성민은 "서울고 때부터 강백호 선배를 좋아했다. 신인인데 긴장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좋다"며 "KT 위즈에 가게 돼서 영광이다. 빨리 팬 분들 만나보고 싶다. 실력, 인성, 팬 서비스 모두 갖춘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투수들을 이끌어 경기를 풀어나가 데 희망을 느끼는 포수 김시양은 키움 유니폼을 입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투수 공을 받았을 때 안 좋는데 제가 좋은 말 하고 이끌어주면 안 좋았던 공이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그럴 때 희망을 느끼게 된다"며 포수의 매력을 언급한 김시양은 "이지영 선배님의 안정

적이고 여유로운 모습이 멋있게 보인다. 가장 큰 롤모델은 박경완 SK 감독대행님이다. 옛날 영상 찾아봤다"고 웃었다.

또 "안정적인 수비력과 투수 리드가 장점인데 수비에 비해 타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지금부터 준비 잘해서 타격에서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야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인성이 되고, 야구 잘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초·중·고에서 함께 야구를 해왔던 '단짝' 이준범과 박대명은 프로에서도 인연을 이어간다. 고창팀에서 함께 하게 되어 기쁨이 배가 된 두 사람. 두 사람은 모두 아버지의 운동선경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준범은 "아버지께서 대학 때까지 축구를 하셨다. 나도 축구를 좋아했는데 우연히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흥미를 가지게 됐다"며 "타격 슬럼프가 없고, 정확한 컨택의 중장거리 타자"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공수주를 고루 갖춘 최원준이 이준범이 가장 눈여겨보는 선배다. 이준범은 "최원준 선배를 좋아한다. 공수주 잘

하고 센스 있게 야구하는 것 같다"며 "아마추어와의 차이도 궁금하고 프로 무대가 기대된다. 팬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훌륭한, 팬서비스 좋은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대명은 아버지를 이어 먼저 골프채를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함께하는 모습에 야구를 고집했다.

박대명은 "원래 골프를 했는데 혼자 하나까 어린 마음에 재미없었다"며 "야구는 다 같이 하는 게 보여서 때려서 야구를 하게 됐다. 친구들과 웃고 울고 모든 걸 공감하고 그런 게 좋다"고 웃었다.

부드러운 몸을 가진 박대명은 차분함도 강점이다. 하지만 올 시즌 부상으로 고전했던 만큼 부상상을 가장 신경 쓰고 있다. 박대명의 롤모델은 동성고와 자랑하는 스타, 양현종이다.

박대명은 "양현종 선배는 우리의 워너비다. 버스트 기증해주고 실력이나 인성적으로 배울 게 많다"며 "특히 제구를 배우고 싶다.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지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 나도 실력이나 인성적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선수가 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

## KIA 원팀정신, 브룩스 공백 채운다

가족 사고 소식에 美 출국...치열한 순위싸움 속 마운드 비상 맷 감독, 김기훈·장현식 고심...이민우 합류 등 경우의 수 다양

'원 팀으로!'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이 '원팀'으로 브룩스를 응원하고 위기를 넘는다.

지난 22일 KIA 선수단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선수단과도 각별했던 브룩스의 가족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브룩스는 급히 미국으로 향했고, 선수들은 모자와 장미 등에 브룩스 가족을 응원하는 문구를 적어 패용을 비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팀의 상황에서도 브룩스의 부재는 큰 약재가 됐다.

브룩스는 올 시즌 팀의 에이스를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을 해주고 있다. 특히 9월 4경기에서 0.9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4승을 책임지는 등 그는 치열해진 순위 싸움의 중심이었다.

불편 고민 속 가장 확실하게 이닝을 소화해주는 브룩스가 빠지면서 KIA 마운드에는 비상이 걸렸다.

또한 브룩스의 복귀 시점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운드의 틀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응원과 마음에 감사하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팬과 야구인들이 브룩스 가족을 응원해주는 것에 대해 대신 감사의 인사를 전한 윌리엄스 감독은 "직접 연락은 받지 못했다. 16시간의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 경황이 없을 것 같다. 아들 웨스턴의 첫 번째 수술이 잘 끝났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감사와 안도의 말을 한 윌리엄스 감독은 현실

적인 팀 운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우리는 그가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가족의 수술 후에도 집에서 브룩스가 필요한 상황이라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브룩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19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윌리엄스 감독은 "다 같이 뭉쳐서 브룩스의 부재를 채워줘야 할 것 같다. 누구 한 사람이 무리하거나, 보여줘야 한다든가 하지 않고 팀으로 뭉쳐서 해야 한다. 팀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남은 시즌 방향을 이야기했다.

당장 브룩스의 출격이 예정됐던 25일부터 채워야 하는 상황, 윌리엄스 감독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화전에서 이민우의 대체 선발로 나선 김기훈과 포스트시즌 전 선발 준비를 했던 장현식이 후보다. 전제 조건은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김기훈을 좋은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 장현식도 맞춰서 준비가 될 것 같다"며 "두 경기(23·24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결막염으로 한차례 등판을 결했던 이민우도 선발 로테이션에 재합류한 만큼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안타까운 약재로 KIA의 '가을잔치'를 향한 걸음은 더디지게 됐다. 하지만 팀은 같은 목표와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KIA가 순위 싸움의 승자가 돼 브룩스를 다시 마운드에서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 토론토 가을야구 1선발은 류현진

포스트시즌 진출 유력...엔트리 40명 명단 발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3)이 예상대로 토론토의 포스트시즌 1선발로 나설 전망이다.

MLB닷컴에 따르면, 토론토는 23일(한국 시간)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40명의 선수 명단(Pool)을 발표했다.

토론토는 아직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이후 첫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을 선수 명단을 일찍 발표했다.

토론토는 28승 27패, 승률 0.509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3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축소 운영되는 올해 메이저리그의 포스트시즌 엔트리는 28명이다.

포지션별로 투수 22명, 포수 4명, 내야수 9명, 외야수 5명이 토론토의 포스트시즌 풀에 들어갔다.

MLB닷컴은 "선발투수진과 불펜을 어떻게 정비할지 정리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면서도 "현재 선발진에서는 류현진이 와일드카드 시리즈(3전 2승제) 1차전에 등판하고, 그 뒤를 이어 타이 워커와 맷 슈메이커 순으로 등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포수는 다니 잰슨, 케일럽 조지프, 알레한드로 케리, 리즈 맥과이어 등 4명이다.

이들 중에서는 지난 22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4안타로 깜짝 활약을 펼친 커크가 포스트시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맡을지가 관건 포인트다. /연합뉴스

## SK, 프로농구 컵대회 4강 선착

지난해 리그 공동 1위 DB 꺾어...주전 부상 속 외인들 맹활약

지난 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공동 1위를 차지한 서울 SK와 원주 DB의 맞대결에서 SK가 웃으며 MG새마을금고 컵대회 준결승(4강)에 진출했다.

SK는 23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DB에 84-74로 이겼다. 1차전에서 인천 전자랜드를 꺾은 SK는 조별리그 2연승을 달리며 조 1위로 4강 진출을 확정했다.

SK는 김선형, 김민수, 최준용, 안영준 등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으나 자밀 워니가

30득점 11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활약했고, 서울 삼성에서 뛰던 이번 시즌 SK 유니폼을 입은 닉 미네라스도 20득점을 기록했다.

DB 역시 두경민, 김태술, 김훈 등이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허웅과 새 외국인 선수 저스틴 녹스가 각각 17득점을 올렸다.

KBL 최초의 일본인 선수이자 아시아 쿼터 제 1호로 DB에 합류한 나가무라 타이치도 국내 데뷔전에서 15득점으로 분전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연합뉴스